KAON
www.kaonmedia.com
TEL +82 31 724 8511 / FAX +82 31 724 8998 / Email scott.lee@kaonmedia.com
KAONMEDIA bldg, 513-4 Yatap-Dong, Sungnam-City, 463-839, Republic of Korea

Designed by _(주) 조인트 크리에이티브

2012 Fall Vol.28

KAON NURI

Dynamic Kaon

• **Team Introduction -** KME • **The Difference between a Pro and an Amateur -** Tony Kim, CFO • **Next Generation Smart TV -** Seung Cheol Kim, ETRI • **Special Interview -** Gi Tae Han, Professor • **ABTA 2012 -** Jennifer S. Han, Marketing Team • **Health, the Source of Laughter and Happiness -** James Kim, SW1 Team • **Enjoying a Baseball Game to its Fullest -** Eileen Park, Accounting Team

2012
Fall
Vol.28

가장 강한 사람

가장 강한 사람은 스스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밝고 생각이 깨끗하여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 사람에게는
어떤 유혹도 다가오지 못합니다.
어떤 슬픔도, 미움도, 시기도
그를 당할 수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복으로 남을 행복하게 하기 때문에
모두가 그의 편입니다.
따라서 외롭지 않고,
외롭지 않으니 두려움도 없고 흔들림도 없습니다.
그는 사랑을 낳고 기쁨을 만들며
감사를 나누며 희망을 전합니다.
그는 스스로를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진정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 정용철의 '좋은 생각' –

contents

OPENING KAON NURI

04 **CEO LETTER**
06 **Celebration**
08 **KAON News Review**

KAON ZOOM IN

12 **Business Column** • Tony Kim, CFO
16 **Team Introduction** • Kaon Middle East
22 **Next Generation Smart TV** • Seung Cheol Kim, ETRI
26 **Special Interview 1** • Gi Tae Han, Professor
28 **ABTA 2012** • Jennifer S. Han, Marketing Team

KAON CULTURE

30 **Peer Recommendation Relay** • Jeong Cheol Jang, SmartTV Development Team
32 **Introduce a Hiking Club** • Ji Ran Park, Outsourcing Management Team
34 **Kaon CSR** • Ryan Chung, PR Team

KAON ENDORPHIN

36 **Summer Vacation Photo Contest** • Bobby Kim, HR Team
38 **Health, the Source of Laughter and Happiness** • James Kim, SW1 Team
40 **Special Interview 2** • Seon Jin Choi, SW4 Team
42 **Enjoying a Baseball Game to its Fullest** • Eileen Park, Accounting Team
44 **About 8 Ball** • Seong Hun Kim, Outsourcing Management Team
46 **Our Family's Summer Vacation** • David Ahn, Sales1 Te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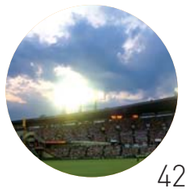
COVER STORY

이번 가온누리 가을호 표지는
'Dynamic Kaon'
가온 미디어의 역동적인 모습을 이미지화
했습니다.

16

22

36


42

성실하고 끈기 있게 일하는 사람들은 늘 최고의 성공을 거둔다

Working with a sincere attitude and perseverance always leads to the best of successes

> 꼼꼼히 주의를 기울이고 부지런히 일하는 자세야 말로 진정한 노력가의 특징이라 할수있다.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4분기는 한해를 마무리 짓는 시점이기도 하지만 내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The scorching summer has steadily passed by now and we are approaching fall, The fourth quarter is the starting point in finalizing the year, but it is also an important point in time to prepare for the upcoming year.

가온인 여러분, 시장은 갈수록 치열해져 가고 있고, 기술 트랜드의 변화의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Employees of Gaon, our competition in the market continue to get fierce and technological trends are rapidly changing more than ever.

이미 전세계 TOP IT 기업들은 삼성, 애플을 제외하고는 모두 각 분야 Top 에서 몰락하였고, 노텔, 코닥 등 전통 제조사도 역사의 뒤안길을 걷고 있으며 뒤늦게 혁신을 외치고 있으나 체질개선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Except for Samsung and Apple, the world°Øs top IT companies have already toppled from being the best in their areas, and traditional manufacturing companies such as Nortel and Kodak have tried to seeks innovative ways to sustain development but have not been able to achieve a radical reform and are fading away into the mists of history.

향후 우리업계의 변화도 우리에게 어떤 도전과 기회를 줄지 모든 것이 불투명하고 많은 부분에서 생존을 위협하는 형태로 발전 되리라 생각됩니다.

It is unclear as to what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that the future changes in our industry will bring about, and I believe that it will develop into a form that will threaten our livelihoods in many ways.

당사에서는 기술과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통하여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하루 속히 준비해서 나가는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실하고 끈기 있게 일하는 사람들은 늘 최고의 성공을 거두듯이 불구의 의지로 일에 몰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It is imperative for our company to develop and implement in advance a strategy to develop a product that is competitive in the market by securing technical and market competitiveness. As people who work with a sincere attitude and perseverance always achieve the best of successes, I encourage everyone to focus on their tasks and duties with a resolute determination.

C.E.O & President 임화섭

"위대한 일은 우연히 이루어지기 어렵고, 과감한 모험으로 행운을 거머쥐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근면과 몰입이야말로 유일하게 하는 안전한 여행길이다. 꼼꼼히 주의를 기울이고 부지런히 일하는 자세야 말로 진정한 노력가의 특징이라 할수있다."

– 사뮤엘스마일즈의"자조론" 중에서 –

"Accident does very little towards the production of any great result in life. Though sometimes what is called 'a happy hit' may be made by a bold venture, the common highway of steady industry and application is the only safe road to travel… Sedulous attention and painstaking industry always mark the true worker."

- Quote from "Self-Help" by Samuel Smiles -

가온의 새로운 얼굴을 소개합니다

July
7월 (2명)

외주관리팀 이영택 과장, 김성훈 사원

August
8월 (5명)

외주관리팀 박민일 주임

영업본부 안병수 차장, 임세준 과장, 성낙훈 과장

품질운영팀 김지후 과장

September
9월 (4명)

품질운영팀 양원석 대리

시스템팀 구교준 선임, 노현명 주임

전략기획팀 조용현 과장

Celebrate!

Happy Birthday · Childbirth

Happy Birthday

July

강병도 고현일 김승수 김철민 신상민
양승민 양준호 오성무 전대석 정준용
조정훈 최덕수 최성남 최세진 허효선
박지현 박찬기 배찬희 서기석 신중원
오 웅 유승범 이규호 이영택 이재헌
이정수 이태훈 이호상 정원용 최영욱

August

강승원 고재영 김국선 김대원 김성민
김진호 김현광 류길오 이민규 이성훈
임소연 장정철 최건묵 한상준

September

권창경 김도형 김동규 김동현 김병환
김승범(영업) 김진우 김태환 김필중 박영록

Childbirth

디자인팀	최유선 (득녀)
영업1팀	류 열 (득남)
영업2팀	이대연 (득남)
외주관리팀	배찬희 (득녀)
SW4팀	조정훈 (득남)
SW5팀	유봉수 (득남)
SW1팀	정무성 (득녀)

KAON News Review

6월
· 그린 SCM 우수기업으로 한국경제TV에 소개
· 다음TV용 스마트박스서 첫 매출
· 제 7회 대표이사배 축구대회 결승전 개최

7월
· ETRI와 차세대스마트TV 기술협력MOU
· ABTA 2012 참가, 중남미시장공략 나선다
· 분기별 실적 턴어라운드 이어나가

8월
· 가천대와 함께 글로벌SW 전문인력 양성 나선다
· 프리미엄 제품판매 호조로 분기별 실적개선 이어나가
· 사내 하계 휴가사진 콘테스트 개최

NEWS LETTER

6월

· 그린 SCM 우수기업으로 한국경제TV에 소개
· 다음TV용 스마트박스서 첫 매출
· 제 7회 대표이사배 축구대회 결승전 개최

그린 SCM 우수기업으로 한국경제TV에 소개

업계 최초로 그린 SCM 구축사업 통해 녹색경쟁력 확보

당사는 중소기업 진흥공단의 지원으로 구축한 Web 기반의 통합 유해물질 관리시스템(IT-System)을 통해 전 부품과 제품에대한 환경유해물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전사 자원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구매에서 생산/판매까지의 전과정에 걸쳐 환경 유해물질 정보를 공유하게 되었다. 또한 시뮬레이션 분석, RoHS/REACH 규제 위배여부 확인 및 해당 규제물질의 법규준수 모니터링이 가능해졌으며, 협력사의 유해물질 정보 입수로부터 고객 및 규제당국에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 제출까지의 전과정을 통제 및 관리할 수 있는 통합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다음TV용 스마트박스서 첫 매출

2분기 첫 공급 등 연간 60억원 매출 전망

당사는 다음TV플러스를 2분기부터 출하하기 시작해 올해 이 부문에서만 연간으로 50억~60억원 상당의 매출이 예상되고 있다. 기존 다른 제품대비 높은 수익성으로 회사의 전체적인 수익성 향상을 주도하게 될 전망이다. 올해 들어 스마트박스와 IP하이브리드 셋톱박스 등 수익성이 좋은 제품군 매출 비중이 늘면서 올해 실적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제 7회 대표이사배 축구대회 결승전 개최

대표이사직속팀이 2:1로 우승 차지

지난 4월부터 약 두 달간에 걸쳐 치뤄진 제7회 대표이사배 축구대회가 지난 20일 대표이사직속팀과 시스템,디자인팀간의 결승전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매 대회마다 우승후보인 양팀간에 치뤄긴 대표이사 직속팀이 시스템,디자인팀에 전반전을 2:1로 앞선 후 후반전내내 양팀 팽팽한 접전을 펼친 끝에 더 이상 골을 기록하지 못하면서 대표이사 직속팀이 우승을 하여 우승상금 200만원과 우승트로피를 차지하는 영광을 가졌다.

NEWS LETTER

7월

· ETRI와 차세대스마트TV 기술협력MOU
· ABTA 2012 참가, 중남미시장공략 나선다
· 분기별 실적 턴어라운드 이어나가

ETRI와 차세대스마트TV 기술협력MOU
국내외 차세대스마트TV 시장선점효과 기대

당사는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김흥남)와 차세대스마트TV 기술의 연구개발협력을 통해 차세대 신성장 동력의 물꼬를 트고 자차세대 스마트TV H/W 기술, HTML5 기반 S/W 플랫폼기술 및 인터페이스응용기술 등 상용화 가능한 분야에 대한 기술협력 MOU를 12일 당사본사에서 체결했다. 당사는 본 기술협력 MOU를 통하여 차세대스마트TV 핵심 기술에 대한 상용화를 추진하고 활용함으로써 차세대스마트TV 시장선점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고, 국내외스마트TV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BTA2012 참가, 중남미시장공략 나선다
ABTA 2012에 차세대 신제품 선보여

당사는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개최되는 중남미지역 최대방송통신장비전시회인 ABTA 2012에 차세대신제품을 선보이며 중남미시장공략강화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임화섭대표이사는 "그동안 스마트박스, IP-Hybrid, 홈게이트웨이 등 회사의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꾸준한 투자가 이제 국내외 선도적인 대형사업자시장에서 하나둘씩 결실을 맺고 있다"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남미방송통신시장에서도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리더쉽을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분기별 실적 턴어라운드 이어나가
3분기, 4분기 지속적인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

당사는 31일 실적공시를 통해 2분기 매출액 374억원, 영업이익 17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년동기 대비 매출액은 22%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지난해 26억원 적자에서 17억원으로 흑자전환했다. 1분기 실적 대비 또한 매출액과 영업이익 각각 19.9%와 64.7% 증가했다.

NEWS LETTER

8월

· 가천대와 함께 글로벌SW 전문인력 양성 나선다
· 프리미엄 제품판매 호조로 분기별 실적개선 이어나가
· 사내 하계 휴가사진 콘테스트 개최

가천대와 함께 글로벌SW 전문인력 양성 나선다
지식경제부 "SW융합 채용연수 사업" 통해 전문 인력 양성

당사는 가천대학교와 함께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하는"SW융합채용연수사업"에 참여하여 우수한 실무중심의 SW전문인력양성에 나선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SW융합 채용연수 사업은 급증하고 있는 SW융합 인력의 수급 불균형 해소 및 채용 지원과 기업 맞춤형 실무 프로젝트 중심의 교육을 통해 기업에서 즉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SW융합 인재 육성을 위해 지식경제부와 기업 그리고 대학이 함께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회사는 금번 "SW융합 채용연수사업"에 선발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6개월간의 회사의 요구에 맞게 설계된 실무 중심의 맞춤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프리미엄 제품판매 호조로 분기별 실적개선 이어나가
IP Hybrid, Smart Box 매출 증가

당사의 플래그쉽 제품인 DaumTV+와 IP 하이브리드 제품의 판매호조에 따라 올 1분기부터 이어지고 있는 분기별 턴어라운드행진을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나갈 전망이다.
당사의 프리미엄 제품 판매 비중은 지난해 10%대 후반에서 올해는 30%대 초반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수익성도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또한 올해 들어 국내외 대형 방송통신사업자들과의 Smart Box, IP 하이브리드, 홈게이트웨이 등 시장선도 제품들에 대한 공급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향후 실적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사내 하계 휴가사진 콘테스트 개최
직원들 투표로 수상작 선정 및 시상

회사는 지난 8월 초부터 일주일간 하계 휴가에서 찍은 가족 사진 콘테스트를 개최하였다. 가족과의 인상깊고 즐거운 모습들을 담은 많은 사진들이 신청되어 그 중 대표작 11점을 대상으로 직원들의 투표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하여 지난 17일 당사 대표이사께서 직접 시상과 함께 부상을 전달하였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점**

The Difference between a Pro and an Amateur

김태원 실장
Tony Kim CFO

해마다 어렵지 않은 적이 없지만, 올해도 대내외 환경이 녹녹치 않습니다. 유럽의 위기는 현재진행형이고, 구미의 영향력에서 한발 물러나 있던 남미도 이제는 경제 둔화의 경종이 울리고 있습니다. 세계 경기를 선도하던 미국과 중국마저도 지친 기색이 역력한데, 엎친데 덮친격으로 세계적 가뭄으로 농작물 흉작으로 인한 애그플레이션(agflation) 기미마저 보입니다.

Although there hasn't been a year that was not difficult economically, the economic situation both in Korea and overseas do not look too bright this year as well. The crisis in Europe is ongoing, and South American countries, which were one step away from the effects of the economic crisis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are now sounding their alarms with respect to their slow economic growth. Where even the U.S. and China who led the world economy show signs of slowed growth, to make things worse, there are also signs of agflation due to the failed harvest of crops caused by world-wide drought.

반면, 우리 회사는 작년의 어려운 경영 상황을 지나 상반기 흑자 전환에 성공하고, 하반기 실적 신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의 결실을 맺은 우리 임직원 모두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On the other hand, our company endured last year's difficult business conditions and successfully brought about a profit turnaround in the first half of the year and expects a growth in sales in the latter half of the year. I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express my gratitude to all of our officers and employees that have reaped great results through such hardship.

경제적 어려움과 우리의 외로운 성장은 명확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이제 큰 싸움을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동종업체는 수두룩하게 망해갈 것이고, 우리의 고객은 점점 더 대형 사업자 위주로 빠르게 재편될 것입니다. 우리의 경쟁자는 세계 최고의 덩치들일 것이고, 그 틈바구니에서 우리는 승리를 쟁취할 것입니다.

It is clear that there are certain implications to take note of amidst such economic difficulties and the isolated development of our company. It's the fact that we must now prepare for the big fight. In the future, competing companies in our industry will fail in large numbers and our customers will more and more quickly realign themselves with mostly larger businesses. Our competition will become the world's most competitive businesses and we will have to attain a winning position amongst such competition.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사업 구조나 플랫폼 차원에서 회사는 명확한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대형 사업자의 솔루션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전략도 실행이 관건입니다. 이를 실행해서 성공시키는 것을 바로 우리들, 가온의 임직원과 협력 파트너들입니다.

In order to do so, what do we need to prepare? In terms of business structures or platforms, the company has a clear and definite strategy. Its to secure our position as the solution partner of large-sized businesses. However, even the best strategy is only useful if it is properl implemented. It is up to us, the officers and employees of Gaon and our cooperative partners, to successfully implement such strategy.

그렇기에 저는, 하반기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로 철저한 프로의식을 꼽고 싶습니다. 연구개발, 영업, 생산, 스탭 각각의 임직원이 글로벌 회사, 대형 회사의 동일 부문의 '그 사람' 보다 더 뛰어나다면 우리 회사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뛰어난 회사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임직원 모두는 스스로가 프로페셔널로 계속 진화해야 합니다.

As a result, I would like to emphasize a strict professional mind as the attitude that we should take on for the second half of the year. If our officers and employees from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sales, production, administrative teams could exceed that "someone" that is responsible for the same area at a global company or large-sized company, then our company would

"프로는 여행가이고,
아마추어는 관광객이다.
프로는 구름 위에 뜬 태양을 보고,
아마추어는 구름 위의 비를 본다."

become a highly competitive company equipped with global competitiveness. To achieve that result, all of our officers and employees should continue to develop themselves as professionals.

프로란 뭘까요?
우선은 전문성입니다. 지식사회의 지식근로자는 전문성과 경험이 최대의 자산이자 역량입니다. 각자 맡은 부문에서 세계 최고의 전문성을 쌓기 위해 노력하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강한 목표의식입니다. 목적에 집중하면 결과도 좋고 행동도 효율적이 됩니다. 목적이 아닌 과정에 집착하면 느리고 마찰적이며 실패의 확률도 높습니다. 셋째는 실행지향적 자세입니다. 방법론보다는 결과에, 말보다는 행동에 치중하는 마음가짐이 진정한 프로의 덕목일 것입니다. 넷째는 배려가 있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일방적 주장과 선언이 아니라 함께 하는 동료의 상황을 살펴 목적을 함께 이뤄나가는 접근방법이, 스스로와 조직의 힘을 극대화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What is a pro or professional?
First of all, it requires expertise. In a knowledge-based society, expertise and experience is the greatest asset and capability to a knowledge-based worker. If each one of us strived to gain the expertise to become the world's best in each one's area, then we would be able to gain and learn so much.
Second, it is about having a strong sense of purpose. If you focus on the purpose or objective, you will attain good results and also act effectively. If you focus on the process rather than the purpose, it will be slow, static and more prone to failure.
Third, it is about putting it into action. The true virtue of a professional is to have an attitude which focuses on results rather than the method and actions rather than words.
Fourth, it is about communicating while being considerate of others. An approach which achieves the purpose together with others by being considerate of a colleague and not unilaterally asserting your own argument or opinion is the way to maximizing your own and the organization's strengths.

가끔 보면, 네 일 내 일 가리거나, 나중에 다음주에 하며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글로벌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각자 스스로가 철저한 프로의식으로 무장해야겠지요.

From time to time, I see instances where people distinguish one's work from the other's, and put back a task to a later time or next week. In order to attain global competitiveness, each one of us should equip themselves with a thorough professional mindset.

프로는 불을 피우고, 아마추어는 불을 쬔다. 프로는 여행가이고, 아마추어는 관광객이다. 프로는 "'해보겠다"고 하지만, 아마추어는 "안 된다"고 한다. 프로는 "난 꼭 할 꺼야"라고 말하지만, 아마추어는 "난 하고 싶었어"라고 말한다. 프로는 "지금 당장"을 좋아하지만, 아마추어는 "나중에"를 좋아한다. 프로는 자신의 일에 목숨을 걸지만, 아마추어는 자신의 일에 변명을 건다. 프로는 기회가 오면 우선 잡고 보지만, 아마추어는 생각만 하다 기회를 놓친다. 프로는 구름 위에 뜬 태양을 보고, 아마추어는 구름 위의 비를 본다.

A professional starts a fire. An amateur comes over and warms himself up by the fire. A professional is a traveler. An amateur is tourist. A professional says "I will try". An amateur says "that can't be done." A professional says "I will certainly try it". An amateur says "I always wanted to do it." A professional likes to do things "right now". An amateur like to do things "later". A professional risks his neck for his work. An amateur makes excuses about his work. A professional first seizes an opportunity when he sees one. An amateur loses an opportunity by only thinking about it. A professional sees the sun shining above the clouds. An amateur sees the rain above the clouds.

어떤 블로그에 정리된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점 중 인상적인 몇 개를 적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프로인가요 아마추어인가요? 내년에는 프로일까요 아마추어일까요? 한번 위의 리스트를 보며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I have listed a few memorable points of difference between a professional and an amateur that was posted on some blog. Can you tell if you are a professional or an amateur right now? Will you become a professional or an amateur this time next year? I hope you would think about that to yourself while taking a look at the list above.

KAON MIDDLE EAST FZE를 소개 합니다.

We would like to introduce to you KAON MIDDLE EAST FZE.

이렇게 가온누리 가을호를 통해 중동 법인을 소개할 기회가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본사와 법인간 긴밀하게 업무를 진행 하지만, 지리상 떨어져 있다 보니 누가있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I am happy to have this opportunity to introduce our Middle Eastern branch through the fall edition of KaonNuri. Despite that the headquarters and overseas branch office closely work together, sometimes we do not even know who works at the branch office because it is just so far away geographically.

가온 미디어의 중동 법인 (이하 KME)은 2007년에 도에 UAE 두바이에 설립된 법인으로, 그동안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위성STB과 IPTV 중심의 영업을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사무실 및 창고 이전, 법인장의 변경 등 자체적으로 재 정비를 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두바이 사무실에 총 5명의 직원이 있으며, 별도로 사우디 아라비아와 쿠웨이트에 1명씩 해서 총 7명이 법인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금번에는 사정상 두바이에 있는 직원들만 간략하게 소개 하고자 합니다.

The Middle Eastern Branch Office of Kaon Media (hereinafter “KME”) is a company that was established in Dubai, UAE in 2007. It has been in operation with the purpose of carrying out satellite STB and IPTV based sales in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regions. In particular, this year, KME went under reorganization including the relocation of its office and storage facility and the replacement of the head of KME, and is moving forward towards a new start.
Currently, there are five employees at the Dubai office, and one each in the Saudi Arabia and Kuwait offices. A total of seven employees are employed by KME.
Due to circumstances, this time, we will only introduce the employees from the Dubai office.

• 김진욱

2009년게 가온에 입사 해서, 현재는 두바이 법인장으로 발령 받아 근무 하고 있습니다.
가온에 근무 하면서 두바이 생활을 할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는데요, 가족과 함께 좋은 추억도 만들고 성공적으로 법인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단, 점심때마다 뭐 먹을까 하는 고민이 여기서는 너무 심각해져서 좀 힘드네요..^^

I first joined Kaon in 2009, and currently have been assigned to KME as the head of the Dubai office of KME. I never imagined that I would live in Dubai when I first joined Kaon, but I am working hard to successfully manage KME and also make long lasting memories with my family. However, it is becoming seriously difficult and painful to choose what to eat for lunch every day..^^

• Alvin A Thomas

인도에서 전기통신을 전공했고, 지난해말부터 KME에 입사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90년 생으로 KME 인원중 가장 어리지만, 법인의 기술 지원관련된 사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있습니다. 첫번째 직장인 가온에 애착이 크고, 함께 발전할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면으로 가온 식구들에게 인사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I majored in telecommunications in India, and joined KME since the end of last year. I was born in 1990 and I am the youngest of the KME family, but I am in charge of overall matters relating to technology support of KME. I have a strong affection for my first job at KME and hope to grow together with the company. It is a great honor to greet other Kaon employees and families through the newsletter.

• Jhun Pantaras

필리핀국적으로, Humax에서 Technical enginner로 일하다가 KAON에 옮겨 오게 되었습니다. 주로 OSN Technical support 및 AS의 실무를 담당 하고 있습니다. UAE뿐 아니라 KSA와 Kuwait 까지 전반적인 OSN의 AS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바이에서 세 아이와 함께 보람찬 삶을 살고 있고, 가온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 행복합니다.

I am a citizen of the Philippines and worked at Humax as a technical engineer before moving to Kaon. I am mostly in charge of the OSN Technical support and AS. I oversee the overall OSN AS not only in UAE but in Saudi Arabia and Kuwait as well. Currently, I am living with my three children in Dubai, and am happy to be working at Kaon.

• Abhishek C. Veettil

인디아에서 태어나 현재 가온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KME에 2007년도에 입사한 뒤 Accounting과 administration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1월에는 둘째아이 출산을 앞두고 있어, 올해 가족과 회사 모두에 좋은 변화가 있는것 같습니다.

I was born in India and currently work at Kaon. Since joining KME in 2007, I have been in charge of accounting and administration. As I am expecting my second child in November, there are good changes both with my family and the company.

• Janito Sanico

2011년 5월 부터 KME에서 engineer로 일하고 있습니다. Jhun을 도와 AS 관련 여러 실무적인 AS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태어 났고, 현재 두바이에는 혼자 거주 하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두바이 삶이 여유롭지는 않지만, KME에 보람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I have been working with KME as an engineer since May 2011. I work together with Jhun in carrying out various AS related tasks. I was born in the Philippines and currently live in Dubai by myself. Although my life in Dubai by myself is not relaxing, I have a sense of reward in KME and am working hard.

상상이 곧 현실이 되는 **환상의 도시, 두바이**

Dubai, a city of fantasy
where imagination becomes reality

벌써 이곳에 정착하고 지내 온지도 어느덧 4달이 넘어 가고, 막연하게나마 알고 있었던 이색적인 이슬람 문화에대해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중동 또는 두바이 하면 뜨거운 햇살과, 이슬람, 풍부한 석유 자원, 과거 대규모 건설 등 조금은 낯설고 생소한 느낌이 나는 단어들이 떠올랐지만, 이곳에서 생활을 하며 지내다 보니 나름대로 이곳 만의 매력이 있음을 느낍니다.

It has already been almost four months since I have settled into Dubai, and I am starting to get to know a little about the unique Islamic culture which I had only vague idea of. When in Korea, the Middle East or Dubai were associated with unfamiliar and strange words such as the hot sun, Islam, abundant oil resources, past grand scale construction projects. However, after having lived here for awhile, I can feel the charm and appeal of Dubai that is unique in its own way.

이번에 기회가 되어, 한 때 전세계인에게 놀라움을 선사 했던 두바이에 대해 간략히소개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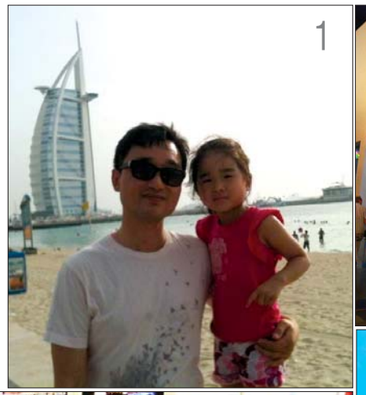
By taking this opportunity, I would like to introduce to you about Dubai, which, at one time, was a matter of astonishment to the entire wor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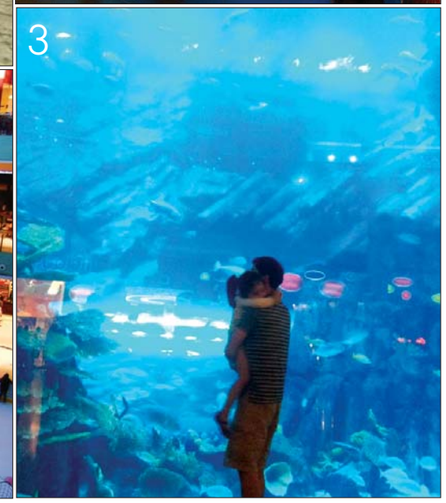
먼저, 지리적으로 두바이가 속한 아랍에미레이트는 중동 의 아라비아 반도에 위치하면서 사우디 아라비아와 카타르 오만등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한반도의 약 37%정도의 면적을 가진 작은 나라 입니다. 전 국토의 97%가 사막이면서 1년 대부분이 고온 다습한 아열대성 기후로, 여름에 해당하는 5월부터 10월까지는 기온이 35C~45C에, 습도 또한 60%를 유지하기 때문에 체감 온도는 70C에 이를 정도의 더운 날씨로 야외 활동은 당연히 불가합니다.

First, the United Arab Emirates, of which Dubai is geographically a part of, is situated in the Arabian Peninsula in the Middle East. It is bordered by Saudi Arabia, Qatar and Oman and is a small country having an area of about 37% of the Korean Peninsula.
97% of the entire country is comprised of desert areas and has a hot and humid subtropical climate. From May until October which is considered as summer, the average temperature is about 35°C-45°C, and the humidity is also about 60%. Thus, the actual temperature that a person may feel can be up to 70°C, making outdoor activities almost impossible.

반면, 비교적 짧은 겨울철에는 20C전후의 선선한 기온과 따뜻한 햇살을 즐길 수 있다고 하니, 두바이 생활 초보인 제 입장에서는 기다려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나라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United Arab Emirates), 아라비아 반도에 위치한 7개의 토후국 연합으로 두바이는 그중 전세계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도시로, 가스 매장량 세계 4위와 원유 매장량 세계 3위라는 엄청난 자원뿐 아니라, 사막에서 기적을 창출하는 도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바이 거주민 중 80%가 외국인으로 영어만으로 모든 생활에 전혀 불편함이 없으며, 두바이에서만 생활을 하다 보면 이곳이 중동안에 있는 이슬람 문화권이라는 생각을 자꾸 잊게 됩니다. 비록 짧은 거주 기간과 야외 활동을 제데로 할 기회는 아직 가지지 못했지만, 두바이의 유명한 몇몇 명소를 소개 합니다.

On the other hand, in the winter, which is relatively short, the average temperature is about 20°C which allows for some pleasant weather. Being new to Dubai life, the winter season in Dubai is much awaited.
As you could tell from the name of the Country, United Arab Emirates, it is a federation of seven emirates, or principalities, situated in the Arabian Peninsula.
Among the seven principalities, Dubai is the well-known city to the world and places 4th in the world for natural gas reserves and 3rd in the world for crude oil reserves. It is said to be a city that creates miracles in the deserts with such abundant amount of natural resources.
80% of Dubai resident are foreigners, so there is not much difficulty with getting by in speaking only English. If you only remain in Dubai, sometimes you tend to forget that it follows the Islamic culture within the Middle East.





1. 버즈 알아랍 호텔 옆 해안가에서
2. 두바이몰 아쿠아리움
3. 두바이몰 아쿠아리움 앞에서
4. 두바이몰 내 아이스링크

1. 부르주 칼리파(Burj Khalifa)

현존하는 세계 최고층 빌딩으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삼성건설이 시공하여 특히 한국사람에게는 더욱 유명한 건물입니다.
(최근 미션 임파서블3에서 보여진 액션 연기로 더욱 유명했지요.)
높이만 828m에 162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호텔, 아파트 사무실 등 사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특히 442M(124층)에 위치한 전망대는 주말에는 예약을 통해서만 입장이 가능 할 만큼 항상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 입니다. 두바이 경제 위기 당시 도움을 주었던 아부다비를 존경하는 뜻에서, 이름이 버즈 두바이에서 버즈 칼리파로 바뀐, 조금은 아픈 기억도 있는 장소 입니다만, 아직도현지 사람 중에서는 버즈 두바이로 부르는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2. 버즈 알 아랍 호텔(Burj Al Arab Hotel)

개관 당시 세계 유일의 7성급 호텔로 알려진 곳으로, 육지가 아닌 바다를 메워 기반을 만든뒤, 321M의 38층 규모의 호텔을 건설 했습니다. 바다에 바로 인접하고 있는 이 호텔만은 주위에 별다른 건물이 없다 보니, 세계 최대 높이를 가진 호텔이라는 것이 실감나지 않습니다.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호텔 투숙자와 레스토랑 예약객, 직원들만 가능 합니다. 저도 딱 한번 가봤는데, 건물 내부에 여기 저기에 장식을 위해 사용된 금들을 보면 놀랍지만, 계산서에 적힌 식사비용도 새삼 놀라게 하는 장소입니다.

3. Dubai Mall

두바이가 쇼핑의 천국임을 보여 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 최고 높이의 부르즈 칼리파 빌딩 옆에 세워진 세계 최대 규모의 쇼핑몰로 내부에는 세계 최대의 실내 아쿠아리움, 실내 금시장, 올림픽 경기가 가능한 아이스 링크와 호텔등이 있습니다. 놀라운 규모와 다양한 즐길 거리 때문에 몇번을 가도 항상 처음 온것과 같은 느낌을 주는 곳입니다.

4. Palm Island

야자 나무 모양의 인공섬으로 Palm Jumeira, Palm Jebel Ali, Palm Deira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착공하여 현재 방문이 가능한 Palm Jumeira는 직경이 5.5km에 이르는 인공섬으로 700만m2의 모래로 바다를 매립해 달에서도 식별이 가능할 정도의 크기라고 합니다.고급 빌라와 아파트 단지가 있고, 끝 부분에는 또다른 7성급 호텔이라는 아틀란티스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베컴과 마돈나등 유명 인사들이 빌라를 구입해 화제가 되기도 했었던 이 인공섬은 공사비만 약 13조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5. 사막 사파리

사막위에 세워진 두바이에서 차량으로 약 30분 정도만 나가면, 황량한 사막을 마음껏(?) 즐길수 있습니다. 지프차에 탑승하여 사막의 모래 언덕위로 이리 저리 달리는 즐거움과 잠시 차를 세워 두고 샌드 보딩과 낙타 타기등의 색다른 경험도 가능 합니다. 보통 사파리 이후에는 현지식 식사와 매와 함께 사진찍기, 물담배로 알려진 시샤등의 체험을 저녁때 진행 합니다.

6. 기타

우리 나라보다 금을 싸게 구할 수 있다는 금시장 (Souq)와 여러 향신료를 파는 전통 시장, 두바이 시내에 바다물로 만든 Creek에서 탈 수 있는 수상 교통 수단인 아브라 (Abra), 자연식 정통 에어컨이 있는 바스타키야, 비 무슬림에게 공개되는 유일한 모스크인 주메이라 모스크, 두바이 최고 인기 스포츠인 낙타 경주등이 있겠네요.
다양한 문화와 특징이 함께 공존하며, 향후 미래를 열심히 대비 하며 발전하고 있는 두바이를 꼭 방문하실 기회를 가져 보시길 권합니다.
중동 국가 답지 않은 자유로움과 현대와 전통이 잘 어우러진 두바이는 여러분이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중동에 대한 많은 선입견을 바꿔줄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마지막으로 멀리서나마 가온 식구들의 건강과 행복한 하루하루되시길 바랍니다.

Next Generation Smart TV

김승철, ETRI
Seung Cheol Kim, ETRI

1. 안녕하세요 박사님, 먼저 자기 소개 말씀 부탁 드립니다.

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방송통신융합연구부문 차세대스마트TV연구단에 근무하는 김승철입니다. 광주 전남대학교에서 전자공학 석사 과정을 졸업한 후, 벤처기업에서의 2년을 거쳐 ETRI에 입사하였고, 올해 10월이 되면 입사 12년차에 접어들게 됩니다. 27살 젊은 나이에 입사해서 지금은 말괄량이 남매를 둔 30대 후반의 가장이 되어 있습니다.

1. Hello, Dr. Kim. Would you introduce yourself first?

I am Kim Seung-cheol who works with Next Generation Smart TV Research Department in Broadcasting & Telecommunications Convergence Research Laboratory at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ETRI). I graduated from the postgraduate course in electronics at Chonnam University in Gwangju, then spent two years at a venture business before I entered ETRI, where I will have spent 12 years in upcoming October this year. I came to ETRI at the young age of 27 and I have become the head of a family in late thirties with a playful son and a daughter.

2. ETRI에서 현재 맡고 계신 업무에 대해서 말씀 부탁 드립니다.

크게는, ETRI를 중심으로 하여 가온미디어를 비롯한 12개의 기업들이 참여하는 Beyond 스마트TV 기술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작게는 Beyond 스마트TV가 지향하는 서비스와 기술들을 수용할 단말 플랫폼의 하드웨어 시스템 개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Beyond 스마트TV 기술은, 다양한 단말에서 최적의 품질로 끊김 없이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게 해주는 N-스크린, 원하는 콘텐츠를 정확히 찾아주는 스마트 미디어 검색, 개방형 스마트 광고, 방송 영상에 부가적인 정보가 합성되어 표시되는 증강방송 서비스, 음성 및 제스처 인식 기반 멀티모달 UI/UX 등 기존의 스마트TV 이상의 기능과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에게 보다 새롭고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기술입니다.

2. Can you tell us about what you are responsible for at ETRI?

On a large scale, I am involved in a project to develop Beyond Smart TV technology, led by ETRI and joined by 12 companies including Kaon Media; on a small scale, I am in charge of the development of hardware system for terminal platform to accommodate services and technologies toward which Beyond Smart TV is oriented. Beyond Smart TV technology is a technology to provide users with a new and pleasant experience through functions and services exceeding existing Smart TV such as N-Screen that enables watching content with optimum quality and uninterruptedly on diverse terminal units, smart media search that finds wanted content precisely, open-type smart ad, augmented broadcasting service that displays broadcast video mixed with added information, multi-modal UI/UX based on voice and gesture recognition etc.

3. 그 동안 ETRI에서 업무를 해오시면서 재미있는 에피소드나 기억나는 일이 있으시면 들려주세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떠올린다면, ETRI에 입사하여 처음 출근하던 날이 생각납니다. ETRI 입사 전 서울 소재 한 벤처기업의 연구개발 부서에서 근무했었는데, 인사발령일 몇 주 전부터 개발일정이 촉박해지고 마지막 마침점을 깨끗이 찍고 가고픈 열망에 일 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ETRI 첫 출근일 새벽 4시경에 개발보드의 테스트가 성공하면서 비로소 회사를 나올 수 있었고, 그 길로 짐도 챙기지 못한 채 가방 하나 메고선 아침 첫 고속버스 편으로 대전에 내려왔는데, 그야말로 참 혈혈단신이었습니다. 지낼 방도 구하지 못했고, 갈아입을 옷도

없이 그렇게 내려왔었죠. 며칠간 퇴근도 없이 밤샘을 했던 터라 씻기도 하고 휴식도 취할 겸 터미널 옆 모텔에 들어갔다가 그대로 잠이 들었고, 오전 11시가 넘어서야 겨우 정신을 차려 핸드폰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첫날부터 지각이라고 이런저런 말씀들도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그날 오후 ETRI 연구실에서 느꼈던 안도감과 평화로움은 아직까지는 생애 최고로 기억됩니다.

3. If you remember some funny episodes while working at ETRI, why don't you tell us a story?

More than anything else, I remember the first day I arrived at ETRI after I was hired. I had worked with the R & D team of a venture company based in Seoul before I was employed by ETRI, where the schedule of development was getting hectic a few weeks before I was notified of my personnel appointment and I was so much preoccupied with the work there as I had aspirations to put clean final touches on my job. At around 4 in the morning on the first day to report to ETRI, the test of a board being developed was successful, when I could leave the company and travel down to Daejeon aboard the first bus in the early morning, carrying only a bag all by myself, without packing up all my belongings at all. Unable to get a room for me to stay in, I just came down without any clothes to change. As I had sat up working for several days and nights, unable to leave work, I got into a motel near the bus terminal to wash myself and take rest, when I fell asleep till came to senses as I was awakened by a ringing cell phone of mine at past 11 am. Though I took some rap for getting late for work on the first day, I still remember the best moment of my lifetime: the relief and peacefulness that I felt in the ETRI laboratory in the afternoon on the day.

4. 외부에서 바라본 가온미디어의 이미지나 느낌에 대해서 말씀부탁드립니다.

가온미디어의 연혁에 설립연도가 2001년으로 되어 있어 매우 놀라웠습니다. 그 시기를 전후로 제가 듣고 보았던 많은 기업들 중 이만큼 성장한 곳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직 가온미디어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지는 못합니다만, 그 한가지 사실만으로도 과거와 현재가 짐작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ETRI와의 MOU 체결식 때의 회사 소개와 사옥 투어를 하면서, 앞으로가 얼만큼의 성취를 보여주게 될지 궁금해지기도 했습니다.
기술과 시장의 변화를 읽어내 받아들이면서 열정과 노력만으로는 이루기 어려웠을 회사의 성장하는 모습에 존경을 표하며 향후 미래의 가온미디어 모습에 많은 기대가 됩니다.

4. Please give us your impressions or feelings as you look at Kaon Media from outside.

I was so surprised when I read in the corporate history that Kaon Media was founded in 2001. Among many companies that I heard of around the time, it is hard for me to find a company that has grown like yours. Though I am not much knowledgeable about Kaon Media at the moment, I think I can pretty much guess its past and present just from the fact alone. I got curious how much achievement the company would show when you introduced the company and gave a tour around the corporate building at your signing ceremony of an MOU with ETRI. I'd like to pay respect to the growth of the company through reading and accepting changes in technology and market while it was unattainable just by passion and effort, and I look forward to the future of Kaon Media hereafter.

5. 앞으로 차세대 스마트TV 관련 업무를 저희 가온과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떠한 내용인지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가온미디어는 Beyond 스마트TV 기술 개발 사업에 공동연구기관으로서 참여하고 있으며, Beyond 스마트TV가 추구하는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들을 담아 이용자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릇이 될 셋톱박스 단말 플랫폼 기술을 ETRI와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제공되었던 단말들은 ETRI 내 여러 팀들과 다른 공동연구기관들에 전해져 연구개발에 활용되고 있으며, 성능과 기능이 개선된 2차 버전이 릴리스되면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들의 적용과 검증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또한, HTML5 기반의 스마트TV 플랫폼 기술의 개발과 표준화에 있어서도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에도 이와 같은 협력 체계가 지속되면서 보다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5. We understand that you implement a project related to next-generation Smart TV with Kaon Media. Could you explain briefly what it is and its future plan?

As I mentioned earlier, Kaon Media participates in the project to develop Beyond Smart TV technology as a collaborative research institution anddevelops together with ETRI set-top box terminal platform technology that will be the container to receive various technologies and services pursued by Beyond Smart TV to deliver them to users. The terminal units provided in 2011 were delivered to several teams at ETRI and other collaborative research institutions for further research and development; if second version with improved capability and functions is released, application and verification of diverse technologies and services will proceed on a full-scale basis. Both institutions cooperate with each other in the development and standardization of Smart TV platform technology based on HTML5. I hope that this system of cooperation will go on from now forward and develop into a direction where far bigger GFeffect of synergies can be gained.

Special Interview I

가천대학교 IT대학

한기태 학장
Gi-Tae, Han
Professor

세계무대에 내놓을 글로벌 인재를 키우는 『아름다운 인재의 샘』 가천대학교는 경원대학교와 가천의과학대학교를 통합하여 명실 공히 규모면에서 수도권 3위 대학으로 도약하였다.
가천대학교의 핵심에는 SW분야의 특성화대학으로 국내에서 최초로 세워진 IT 대학이 있다. 본 대학은 소프트웨어설계경영학과, 컴퓨터공학과, 컴퓨터미디어융합과, 에너지IT학과와 전자공학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2,500여명의 학생들이 미래 한국을 이끌어 갈 IT 전문가를 꿈꾸며 자신의 경쟁력 향상에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아 붇고 있다.

As the "fountain of beautiful talents" that fosters global talents to deploy to the world scene, Gachon University has leaped to the third largest university in Seoul metropolitan area through the combination of Kyungwon University and Gachon University of Medicine and Science. At the core of Gachon University lies its College of Information Technology, the country's first instance as a college specializing in software. The College is composed of the Department of Software Design & Management, the Department of Computer Engineering, the Department of Interactive Media, the Department of Energy IT, and the Department of Electronic Engineering, where 2,500 or so students put their time and passion in improving their competitiveness, dreaming of becoming IT specialists leading Korea in the future.

최근 IT산업은 국가적으로 핵심 산업의 한 분야로 성장했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IT와 융합을 지향하고 있으며 IT의 융합 없이 독자적인 산업형태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산업계의 인식이며, 국가의 산업정책방향도 모든 산업부야에서 IT와의 융합을 지향하고 있다. 의료 IT, 자동차 IT, 건설 IT, 국방 IT, 소방 IT, 문화 IT 등의 융합을 비롯한 최근에는 인문과 사회과학에 이르기까지 IT와 융합한 새로운 산업창출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본 대학의 모든 교수들은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이론과 실무에 능한 우수한 SW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IT has recently grown into one of the nation's core industries, while lately various industrial sectors aim at IT and convergence. And the industrial world has a consensus on the difficulty of any single independent industry securing competitiveness without a convergence with IT, while the country's industrial policy is oriented toward a convergence with IT in all industrial sectors. A lot of efforts are exerted to create industries through convergence with IT, including medical IT, auto IT, construction iT, national defense IT, fire-fighting IT, and cultural IT, with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recently included. In step with that, all professors of the University make utmost efforts to groom excellent software specialist resources who are versed in both theory and practice that are required by the industry.

대학의 경쟁력은 학생들의 경쟁력이다.
동시에 학생들 개개인의 경쟁력은 대학의 경쟁력을 구성하는 최선의 길이다.
대학의 경쟁력과 학생들의 경쟁력이유기적으로 호환을 지속할 때
가천대의 미래는 밝다.

특히 IT대학은 SW 융합 인재양성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지식경제부 기술혁신사업인 SW융합채용연수사업에 선정되었다. 이 SW 융합채용연수사업은 국내 유수의 SW 기업과 협약에 의하여 연수를 시행하고, 수료한 연수생들에게 70%이상의 채용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강도 높은 교육과정으로 편성되어 있다. 본 연수사업에는 모바일 임베디드 SW과정에 7개 기업과 모바일 응용 SW 과정에 7개 기업이 참여하며, 2013년 1월까지 모든 교육을 종료하고 2013년 2월까지 채용을 완료하게 된다.

In particular, College of Information Technology has been selected for Software Convergence Recruiting and Training Project, a technological innovation project by th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this year, following last year, in order to meet the enhancement of national competitiveness through cultivation of superior software convergence human resources. The Software Convergence Recruiting and Training Project has a high-intensity educational program that carries out training based on an agreement with the country's leading software companies, while guaranteeing jobs to over 70% of its graduates. The training project has seven companies participating in its mobile embedded software course and as many firms participating in its mobile application software course, set to finish all training by January 2013 and complete participants employment by February 2013.

아울러 본 대학에서는 박애, 봉사, 애국이라는 교육 이념을 가지고 창의적 세계인, 나눔의 실천인, 탐구적 전문인이라는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 전공교육은 물론 인성교육에도 헌신을 다하고 있다.

Furthermore, the University is dedicated to personality education as well as major education to achieve the educational goals of "creative cosmopolitan, sharing person and investigative specialist" through educational ideologies of fraternity, service and patriotism.

가천대학교 IT대학장 한기태

Dean of the College of Information Technology
Hahn Gi-tae

ABTA 2012 전시회 동향

중남미 유료 TV 시장 전망

최근 Digital TV Research 의 발표에 따르면 2017년 글로벌 유료 TV 서비스 시장은 2,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이중 중남미 국가의 유료 TV 시장은 다른 여타 대륙에 비해 57.5%의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브라질의 2017년 유료 TV 시장은 2011년보다 약 2배 성장, 101억 달러의 시장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전세계 3대 유료 TV 시장 점유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런 만큼 중남미 최대 시장인 브라질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시장인 것이 분명하다.

출처 : Digital TV Research 2012. 07, 글로벌 방송통신 동향리포트 제84호

Participation Notes of the ABTA 2012 Expo & Conference

By participating in this year's ABTA expo, Kaon had a good chance to grasp the understanding of the business structure of the complex Brazilian market (tax, foreign exchange, interest, etc.) and form a presence in the Central and South America market at the appropriate time. As the potential for growth in Central and South America is greater than any other continent, in order to gain a profitable position within the Brazilian market from a mid- to long-term perspective, participation in exhibitions, roadshow promotions targeting major large OPs will also be a valuable strategy to implement.

ABTA 2012 전시회 참가후기

"Convergence" 주제하에 개최된 ABTA 2012는 전세계 20여개국에서 100여개 Exhibitor들이 참가한 전시회로 중남미, 특히 브라질 Local 시장의 대형 사업자들이 주요하게 참가하는 전시회이다. 참가 OP사는 GVT, Oi TV, Telefonica, NET, Globosat 이며, 중국 STB 업체들이 개별 부스 및 Pavilion을 이루어 대거 참가하였고, CAS는 NAGRA, NDS, Verimatrix, CONAX가 참가하였다. Middleware 및 Solution Partner들은 직접 부스를 가지고 참가하지 않고 파트너사(칩사)와의 Co-Promotion형태로 참가하였다. 주요 STB참가업체로는 Pace, Homecast, Arion, Fortis가 있고, Head-end Solution업체는 Motorola, Cisco 등이 있다. 경쟁사 제품의 동향을 살펴보면 대부분 전시회 주제에 걸맞게 Connected, Convergence 기능을 구현하는 Multiscreen Solution. (Home Gateway), Hybrid, OTT Devices 및 Solution 들을 선보이고 있었다. 올해 가온이 본 전시회를 참가한 성과로는 중남미 시장에서의 Presence를 적절한 시기에 형성, 복잡한 브라질 시장의 비즈니스 구조 (세금, 환율, 이자 등)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기회였다는 평이다. 성장가능성이 다른 어느 대륙보다 높은 만큼, 중장기적 관점에서 브라질시장에서 승부를 보기 위해서는 전시회 참가 뿐만 아니라, 핵심 대형 OP를 타겟으로 한 Roadshow Promotion을 전개하는 것도 유효한 전략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With its theme on "Convergence", the ABTA 2012 was held with the participation of over 100 exhibitor from 20 different countries worldwide, and is an exhibition that is mostly participated by large companies in South and Central America, and in particular, the local market of Brazil. OP participants included GVT, Oi TV, Telefonica, NET, Globosat, and many Chinese STB companies participated as well by setting up individual booths and a Pavilion. CAS participants included NAGRA, NDS, Verimatrix and CONAX. Middleware and Solution Partners did not participate by setting up their own booths, but participated in the form of a co-promotion with their partner companies (chip manufacturers). Major STB participants included Pace, Homecast, Arion and Fortis, and head-end solution companies included Motorola, Cisco and many others. Looking at products trends of competing companies, most companies showed off multiscreen solution (home gateway), hybrud, OTT devices and solutions that realized connected and convergence functions, befitting the theme of the Expo.

Peer Recommendation Realy

칭찬합시다

언제나 유머러스한 **한상훈 책임**

칭찬하는 이
장정철 주임 연구원
Jeong Cheol, Jang

이양석 수석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chief Yang-Seok Lee.

가온에서는 칭찬받을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칭찬을 받으니 쑥스럽기도 하네요. 수석님 말씀대로 긍정적인 사람, '지'가 '덕'을 넘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분을 칭찬할까 생각하니 참 많은 분들이 떠오르네요. 가온미디어에는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증거이겠지요.

There are many others at Kaon that should be complimented, but I feel a bit embarrassed to have received such compliment. As chief Lee said, I will try to become a positive person who does not place knowledge or abilities before virtue. There are so many people that I can think of to compliment them. This is also evidence that there are so many great and admirable people at Kaon Media.

저는 이번에 **한상훈 책임님**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This time, I would like to compliment and nominate manager Sang-Hoon Han.

한상훈 책임님은 정말 책임감이 투철하신 것 같은데요. 정말 어려운 일들도 일정에 맞추어서 척척 해내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능력에 혀를 내두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게다가 업무적인 면으로 많은 부분을 요청 드리고 물어보게 됨에도 불구하고, 귀찮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여러 번 감동 받았습니다. 또한, 업무적인 부분은 물론이고, 그 외 다른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폭넓은 관심사와 지식을 가지신 것을 보고 배울 점이 많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Manager Sang-Hoon Han has a very strong sense of responsibility. I have been astonished many times when I see him display his abilities by carrying out a difficult task that is due within a very tight schedule. Moreover, even when I ask him about work and seek a lot of help from him, I was very impressed how he had always treated me with kindness and did not consider me to be annoying. Also, I had also thought to myself that there were so many things to learn from him when we discussed about not only work matters but other areas or topic and I noticed that he had a wide range of interests and had a vast knowledge on various areas.

한상훈 책임님,

업무가 많고 바쁘셔도, 꼭! 건강은 챙기시면서 일하셨으면 좋겠구요, 다가오는 결혼준비 잘 하셔서 좋은 가정 이루셨으면 합니다.

Manager Sang-Hoon Han.
I hope that you take good care of your health even if you are busy with work.
And I also hope that you will form a lovely family by preparing well for your upcoming wedding.

칭찬받는 이
한상훈 책임
Sang Hoon, Han

동료 "愛"와 우 "情"을 쌓는 **KHC**

산행 동호회

안녕하세요. 가온미디어 산행 동호회 KHC입니다.
KHC (Kaon Hiking Club)는 올해 4월 정식 설립되었으며 현재 11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매월 3째주 토요일 서울,경기 인근 산을 산행하고 있으며 가볍게 왕복 3~4시간 코스로 운영 하고 있습니다.
KHC의 설립취지는 체력단련으로 바쁜일상에서 심신을 단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만, 산행시작 이후 현재 동료이자 선후배간의 동료 의식을 고취 할 수 있는 모임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등산이라는 단어보다 산행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이유도 등산보다 좀더 여유로운 발거음과 마음으로 서로를 끌어주고 밀어주며 동료 '愛'와 우'情'을 쌓아가며 서로의 땀을 닦아줄수 있는 모임이 되자는 취지입니다.

Hello, we are KHC, the Kaon Media Hiking Club.
KHC (Kaon Hiking Club) was officially established in April this year and currently has 11 members.
KHC goes hiking every third saturday of each month to mountains in Seoul and nearby Gyeonggi-do. Our courses are fairly easy and take about 3 to 4 hours roundtrip.
The purpose of KHC is to train our minds and bodies in the midst of our busy lives through physical training. However, it is developing into a gathering where the sense of team work and camaraderie is inspired between colleagues, seniors and juniors once the hiking begins.
The reason why we chose the word "hiking" rather than "mountain climbing" is because of our aim to become a gathering where we could wipe the sweat off of each other's brows and create a bond between fellow co-workers and companionship and help each other while hiking through the mountains with a more relaxed foot step and heart.

회사생활이 다소 힘들고 벅차다고 생각되시는분들!! 저희 KHC와 함께 푸른 하늘을 보고, 맑은 공기를 마시고, 시원한 바람을 느껴보십시오. 회사생활이 다소 외롭고 지치시는분들!! 동료와 함께 손에 손잡고 오고가는 물병에 정을 느껴보십시오.

Those of you who think that your work like is rather difficult and overwhelming! Join KHC to see the blue skies, breathe in fresh air and feel the cool breeze together.
Those of you who feel alone and tired when at work! Hold on to your fellow co-worker's hand and experience the friendship created through a bottle of water.

주말 모임으로 다소 참석이 어려운 분들이 많겠지만, 저희 동호회가 가온의 작은 활력소가 될것입니다.

Although it may be difficult for many of you to join us due to weekend plans, KHC will be a small source of energy for Kaon.

지역 학생자원 봉사대회 + 환경보호 페스티벌 후원

Support for Local Student Volunteer Competition and Environment Protection Festival

지역 불우아동 및 불우가정 지원사업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는 당사는 지난해부터 후원해 오고 있는 지역 학생봉사대회에 올해도 후원금과 다음TV+를 수상자들에 부상으로 지원했다.

Our company continues to constantly expand its local support project for disadvantaged children and families. As we have continued to support the competition since last year, this year, we have also provided the winners of the local student volunteer competition with support funds and Daum TV+s as additional prizes.

"자원봉사는 이웃사랑 실천하고 더불어 사는 소통방법"
"지역사회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으로 한층 더 성숙한 대회로 발전"

지난 7월 21일(토) 성남시청 1층 온누리홀과 누리홀에서 오전 9시반부터 오후 7시까지 장장 9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2012 학생자원봉사대회 & 환경보호페스티벌 대회는 불볕더위에도 불구하고 학생 · 학부모 및 각계인사 등 3백여 명이 참석해 자원봉사와 환경보호 활동내용을 소개하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 · 시상하는 축제의 한마당으로 펼쳐졌다.

The "012 Student Volunteer Work Competition and Environment Protection Festival" was held on Saturday, July 21st at Onnuri Hall and Nuri Hall on the 1st floor of the Seongnam City Hall for 9 hours from 9 am until 7 pm. Despite of the scorching heat, about 300 people including students, parents and public figures from various circles attended the event which introduced volunteer work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activities and encouraged and awarded the efforts of the participants.

본선 순서인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에는 개인 10명, 팀 17개 등 모두 27개 팀이 본선에 진출해 그간의 활동내용을 글자와 사진은 물론 동영상까지 보여주는 등 땀과 눈물이 섞인 노력을 보여주었다. 1년 동안 무려 220시간을 봉사에 쏟은 학생도 있었고 초등학교 1학년 때 만나 중3이 되도록 9년째 한결같은 봉사를 펼쳐온 팀과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문제를 국내외적으로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온 학생도 있었다.

A total of 27 participants comprised of 10 individuals and 27 teams advanced to final round which was the power point presentation competition and showed off their hard work and efforts by presenting their activities through text, picture and even videos. There was a student that spent over 220 hours in participating in volunteer works for one year, and also a team that was formed when they were in the 1st grade and continue to volunteer together in the 9th grade. There was also a student that enthusiastically tried to resolve the Japanese comfort women issue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이밖에 저소득계층 및 다문화가정 교육봉사, 스와질란드, 캄보디아, 유니세프 등 해외봉사, 치매노인요양원 봉사, 소아혈액암 돕기 머리카락 기부봉사, 문화소외층 대상 공연봉사단체 등 다양했다.
마지막 시상식 순서에서는 수상 팀이 발표될 때 마다 장내는 환호성이 가득했고 수상의 기쁨에 한 학생은 익살스러운 표정과 몸짓을 취하기도 했다. 금번대회를 통해서 건강한 생각을 지닌 젊은이들이 밝고 활기찬 사회를 만들어가는 사회단체의 새로운 모델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해본다.

In addition, there were a variety of other volunteer work such as educational volunteers for children belonging to low-income families and multi-cultural families, overseas volunteers including Swaziland, Cambodia and UNICEF, volunteer work at centers for the elderly with dementia, hair donation to help support children with leukemia, performance groups for the culturally neglected classes. Finally, during the awards ceremony, the event hall was filled with cheers when teams were announced and one student, filled with joy of accepting an award, made comical expressions and poses. We sincerely hope that, through this competition, young people with sound minds could be the new role models for social organizations that create a bright and exciting society.

2012년 가온미디어 하계휴가 사진 콘테스트

7월 30일부터 8월 3일까지 진행 되었던 '2012년 가온미디어 하계휴가 사진 콘테스트' (부제: 우리는 네가 이번 여름에 한 일을 알고싶다)가 성황리에 마감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응모 해 주셨고 그만큼 경쟁도 치열 했습니다. 8월 17일(금) 드디어 수상작이 발표 되었는데요, 심사는 1층 로비에 전시된 출품작들에 가온 임직원들이 마음에 드는 작품을 투표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또한 임직원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The "2012 Kaon Media Summer Vacation Photo Contest" (Subtitled, "We want to know what you did this summer"), which was held between July 30 and August 3, ended in great success. Many employees participated and the competition was fierce. The winning photos were finally announced on Friday, August 17. The winning photos were determined by having Kaon officers and employees vote on each of their favorite photos which were displayed on the 1st floor lobby. Many officers and employees showed great interest and participated in the voting.

영광의 수상자들

Let's take a look at the winning photos.

영광의 수상자들입니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수상작들을 감상 해 보세요.

These are the glorious winners of the photo contest.
An honorable moment for their families.
Let's take a look at the winning photos.

1등!
작품명 가족의 품격을~ 해치는 아들
1st place
Title: My son who is ruining our family's dignity
Manager Seung-Beom Yoo, Quality Management Team

2등
작품명 고베타워 앞에서 똥폼
2nd place
Title: Awkward pose in front of the Kobe Tower
Full-time researcher, Du-Won Seo, SW1 Team

3등
작품명 알콩달콩 우리가족
Title: Our happy family
Full-time researcher, Jeong-Hoon Cho, SW4 Team

4등
작품명 세부에서 쭌이와..
Title: In Cebu, with Jjooni
Manager Young-Ho Kang, Sales2Team

웃음과 행복의 원천, **건강**

Health, the Source of Laughter
and Happiness

• 김홍신 선임연구원 +
James Kim
SW1 Team

뇌 그림에 자신의 생각들을 써 넣고, 얼마나 차지하는지 등의 것으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봤습니다. 제 경우는 50% 정도가 건강입니다. 돌이켜 볼 것도 없는 짧은 인생이지만, 여러 가지의 직/간접적 경험을 바탕으로 내린 결론 입니다. 내 몸이 피곤하고 아프면 자연스럽게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고, 짜증이 쉽게 나는데, 거기다 회사일 이든 개인적인 일이든 잘 풀리지 않을 때는 폭발하게 되는 거죠. 어디선가 양말 광고에 나오는 듀엣의 노랫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그냥 이렇게 좀 떨어져서 사람들 사는 것을 보고 종합을 해보면, 회사는 다니고, 점점 사회는 각박해지고, 경쟁이 심해지고, 여분의 resource들을, 시간, 돈 등등, 그런 것들을 위해서 투자를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동안 못 보던 친구들을 만나면, 어디서 무슨 생고생을 했는지 갑자기 아저씨처럼 변했고, 여자들의 경우는 대화의 주제가 살 빼야 한다면서 시간이 없다는 등의 말을 하고 단기속성으로 살을 빼는 방법을 찾는데 몰두 합니다. 물론 그들은 자신들의 영역에서 자리를 잡고, 사회적 지휘를 가지고는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왠지 어색하고, 뭔가 하나 빠진 듯한 느낌이 듭니다.

I came upon this article where it asks you to write your thoughts in a picture of a brain and then talks about what percentage by item or though takes up the brain. In my case, 50% of my brain thinks about health. Although I've only lived a very short life, it is a conclusion that I ended up with based on various personal and indirect experiences from the past. When my body feels tired, smiles or laughter from my face would naturally disappear and I would tend to become more irritated. In addition, I would explode if personal or work matters did not end well. I think I can hear a duet song from a certain socks commercial.

제가 이번에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예방의학입니다. 어느 화장실에서 누가 한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 개인적으로 매우 동감을 하고, 그런 생각에 비추어 많은 사람들이 조금 얻고, 많이 얻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만큼 열심히 다 잃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을 위한 예방의학 상식 몇 가지를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What I would like this share this time is preventive medicine. I don't quite remember who wrote in which toilet stall, but I remember reading something like this, "if you lose money, you lose a little; if you lose honor, you lose a lot; if you lose your health, you have lost everything." Personally, I can very much relate to that saying. And in light of such saying, a lot of people work very hard to gain a little or a lot. But, sometimes it also seems that they work so hard to diligently lose everything in return.

1. 규칙적인 운동

고인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우리 몸은 먹는 것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 그것을 사용하고 다시 먹는 것을 통해서 에너지를 마련합니다. 요즘은 너무 잘 먹고 많이 먹어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코 앞만 생각하는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먹으면 몸을 움직여 에너지를 소모하면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 입니다. 소모하지 않고 계속 쌓아 놓으면 썩습니다. 그것들이 독이 되어 우리 몸에 돌아옵니다. 주기적으로 땀을 흘리고, 식사는 먹고 싶은 거 잘 드셔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습니다. 땀을 흘리는 운동을 통해 순환계를 통해 좋은 것들이 온 몸 구석구석 잘 전달되고, 온 몸 구석구석으로부터 나쁜 것들을 배출하게 하는 것은 신장기능을 높여주고, 피를 맑게 하고 모든 장기를 신선한 상태로 만들어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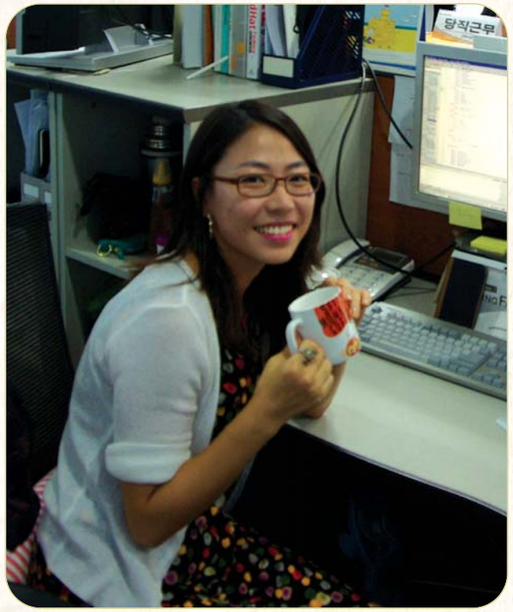
2. 오메가 3

저희 부모님 세대와 달리 요즘 사람들은 활동량이 적고, 주로 앉아서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혈관 질환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한의학에서는 피가 맑은 사람은 병이 없다고 했습니다. 탁한 피에는 여러 가지 불순물, 콜레스테롤, 지방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혈관 벽에 붙어 혈관을 막고 여러 가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혈관 질환은 고칠 수도 없는 병이며, 순간에 생기는 병도 아닙니다. 오메가 3는 우리가 알기로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복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메가 3의 효능 중 첫 번째는 혈행 개선입니다. 우리가 아는 오메가 3는 ω-3 fatty acids로써 불포화 지방산 입니다. 간단히 유성매직을 기름으로 지우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생선기름에는 EPA, DHA, Vitamin E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유류는 이것을 자연적으로 합성하지 못하지만 신진대사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저렴한 값의 만병통치약 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매일 아침 식사 후 먹고 있으며, 임산부 및 어린 아기들은 의사 처방을 받고 드시면 됩니다.

3. 노자

1, 2번이 신체적으로 건강을 찾는 방법이라면, 정신적인 면에서 건강을 찾는데, 노자를 권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노자가 언제 사람이고, 어떤 사상을 주장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老子는 특정한 인물이 아닙니다. 한자어에서 알 수 있듯이 늙은 사람 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른 들이 하는 말들을 모아 놓은 것이 노자 입니다. 간단한 예로,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가 공부하라고 합니다. 알아서 할거라고, 또는 하기 싫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커서 자신들이 아이를 낳아서 기를 때, 공부를 안 하면, 아이에게 공부하라고 합니다. 이렇듯 많은 세대에 걸쳐서 어른들이 하신 말씀, 즉 우리의 삶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너무 딱딱하지 않나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EBS에서도 강의를 했던 도올 김용옥의 '노자와 21세기'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생각도 순환이 되지 않으면 썩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와 미쳐 몰랐던 새로운 생각들을 다시 채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바쁘고 지치고 스트레스 받는 현대 생활에서 다 잃지 마시고, 다 얻는 생활에 resource를 조금 투자해 보는 건 어떨가요?



Special Interview 2

미소가 아름다운 그녀, **최선진전임**을 소개합니다.

모니터에 눈을 고정하고 집중하며 일하는 것,
옆자리 동료와 일에 대해 토론을 하는 것,
피곤한 어깨를 펴고 옥상에 올라가 커피 한잔 하는 것.
모두 보기 좋은 일터 풍경이었습니다.
내 회사, 내 일이라는 생각으로 각자가 일을 즐기는 마음을 가지고
다함께 쭉 즐겁게 일했으면 합니다.

1. 자기소개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올해 5월 14일자로 소프트웨어 4팀에 입사한 최선진입니다. 아직은 회사 내에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 얼굴 외우는 일에는 자신이 좀 없어서 시간이 오래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야탑역 근처에서 마주쳐서 인사 못하더라도 너그러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얼굴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1. Please introduce yourself.

Hello. My name is Seon-Jin Choi and I joined the Software Team 4 on May 14 of this year.

2. 평소 좋아하는 관심사나 취미가 있다면?

취미는 청소입니다. 이전엔 엄청 귀찮아하던 일이었는데 이제는 좋아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아주 작고 아담한 내 집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주말이면 집 청소하고 인터넷에 올라온 인테리어 사진을 찾아보면서 집을 어떻게하면 예쁘게 꾸밀까 열심히 연구중입니다. 내가 쓸 물건을 직접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미싱도 하나 구입해서 커튼 만들기, 의자 커버 만들기 등 DIY하느라 주말에는 정신이 없습니다. 좀 더 숙련되고 나면 이광우 수석님 티셔츠도 하나 만들어 드리기로 했지요 ^ ^

2. Do you have any interests or hobbies?

My hobby is cleaning. Cleaning used to be so tiresome to me before, but now it is something that I enjoy.

3. 하계휴가때는 머하셨나요?

아는 언니와 네비게이션을 끄고 지리도 모른 채 서해 도로를 구석구석 다녔습니다. 맘 내키는 대로 가다보니 제부도를 지나 을왕리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휴가 첫날 저녁 무렵에 제부도에 도착했더니, 저녁의 은은한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갯벌에서 가족들이 모여 조개를 캐고 있었습니다.
해변에 앉아 맥주 한 캔씩 들고 물이 빠지는 것을 보며 시간을 한참 보냈습니다. 평화로운 분위기로 가족여행 하실 분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제부도와는 다르게 을왕리 해수욕장은 아이들 물놀이하기에 좋았습니다. 백사장 길이가 약 700m, 수심도 낮고 해수욕장 양쪽 옆으로 기암괴석이 늘어서 있어 경관이 좋았습니다. 제부도에서는 바지락 칼국수를 꼭 드셔보시길 권합니다.

3. How did you enjoy your summer vacation?

I traveled every part of the western sea road ways with a older female friend without the use of a navigation and not knowing where we were going.

4. 가온 임직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

먹고 사는 것과 관련된 일을 하려면, 기쁨이나 슬픔을 느끼고 있던 사람도 일단 그것을 정리하거나 잠시 멈춘 상태에서 일에 몰입을 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어서, 일터는 감정이 배제되어야 하는 영역이 되곤 합니다. 그 감정들 중 즐거운 감정 만큼은 남기고 일을 했으면 합니다.

4. Do you wish say anything to the officers and employees of Gaon?

I hope that we could all work together happily for a long period of time being content with their work and with a mind set of acknowledging the company and work as my own.

야구장 백배즐기기

Enjoying a **Baseball Game** to its Fulles

안녕하세요 ^^ 재무관리팀 박초희입니다.

끝나지 않을것만 같던 폭염이 끝나고 어느덧 가을이 성큼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야구장을 더욱 더 재밌게 즐기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

Hello^^ My name is Cho-Hui Park from the financial management team.

It seems like fall is approaching us after the sweltering heat has passed which did not seem like it was going to end. Today, I would like to introduce to you ways of further enjoying a baseball game. ^^

먼저 야구장에 가고싶어도 야구 규칙을 몰라서 선뜻 가볼 생각을 못하고 계신 분들께는 응원석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응원단장과 치어리더가 있는 응원석에서 한경기를 보고나면 선수이름을 하나도 몰랐던 분들도,집으로 돌아가는길에 선수의 응원가를 흥얼거리고 계실꺼라고 확신하구요ㅋㅋ

신나게 소리지르면서 응원하다보면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데도 그만이라는 사실!!^^

또한 응원석을 대상으로 많은 이벤트도 열리고 있으니 참여해보시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야구장을 방문하고 있는데요, 계속 야구를 보다보면 관심있는 선수도 생기기 마련이죠 (전 두산팬으로 특히 김현수선수를 좋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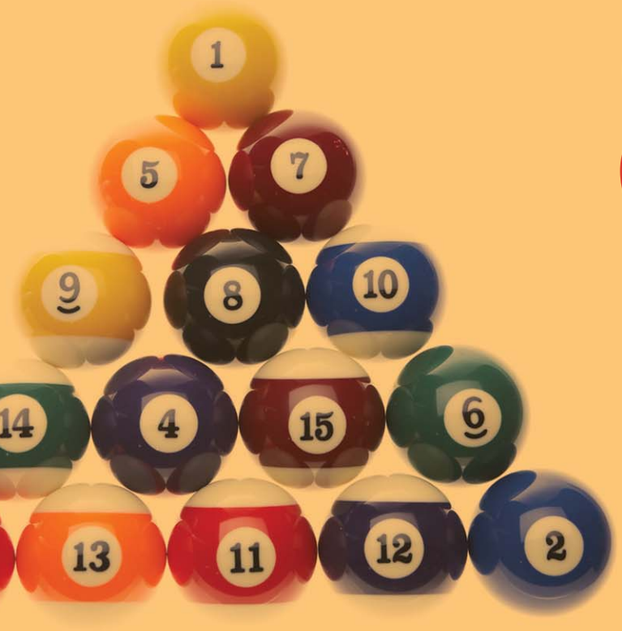
선수가 가까이 보고싶다! 하시는 분들은 외야석에 앉는것도 재미있으실꺼예요~ 플레이 하는 선수를 직접 눈앞에서 보고나면 야구에 흥미가 더 생기기도 하고, 선수들이 팬서비스 차원에서 던져주는 공을 받을수도 있고 더 운이 좋은 경우에는 홈런볼을 잡을 가능성이 있는 곳이 바로 외야석이랍니다! 정말 매력있는 곳이예요.

First, for those of you that are hesitant to go to a baseball game because you don't know the rules, I recommend that you buy a seat in the cheering section!

I am confident that if you watch a baseball game from the cheering section where the cheerleading captain and cheerleaders lead the cheers, spectators that did not know the names of players will be humming the cheering songs on their way home. It's also a great way to relieve stress by cheering on the players by screaming and shouting.

마지막으로 야구장 하면 빼놓을수 없는 게 바로 먹거리인데요, 야구장 하면 치맥!을 먼저 떠올리실텐데 요즘 야구장에선 족발, 떡볶이, 피자, 팥빙수 등 정말 다양한 음식들을 팔고있구요, 자리에 앉아서 주문을 하면 배달도 해준답니다!!)_〈 그래서 금요일엔 직장인들의 회식장소로도 자주 애용되고있어요~~

Also, there are many spectator events that are held for the cheering section. So, why not make some memories to cherish by participating in those events.



8 About Ball

8볼의 모든 것 함께 배워봅시다

안녕하세요? 외주관리팀 신입사원 김성훈입니다. 아직은 신입이라서 모르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항상 엘리베이터나 회사내에서 힘차게 인사할 테니 아는척 부탁드립니다.

이번 여름은 다른해보다 많이 더웠던거 같습니다. 가온식구 여러분들도 이번 여름이 힘들었을거라 생각합니다. 무더운 여름도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날씨도 좋아졌으니 다들 즐거운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저의 관심사를 소개 하고자 이렇게 몇 글자 적어 봅니다. 저의 관심사는 포켓볼 중 에잇볼입니다. 제가 아는 에잇볼 룰과 재미있게 치는 방법등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에잇볼은 1~15개의 볼으로 시작하며 무늬가 없는 볼 1~7번 무늬가 있는 9~15번 볼을 선택해 자신의 볼을 다 넣고 마지막에 8번 공을 넣는 사람이 승자가 되는것입니다. 간단하죠??

Hello. My name is Seong-Hoon Kim, the newest member of the Subcontractor Management Team. Many of you may not know me well as I am a new employee. Let me assure that I will always be the first to greet you in the elevetor or office, so please give a nod or sign of acknowledgement when I do so.

This summer seemed to be hotter than previous years. I believe that our Gaon members also had a difficult time coping with the summer heat this year. The hot and humid summer is almost at its end and fall is nearing upon us. Now that the weather is more enjoyable, I hope that everyone could have a good time enjoying the weather. I am writing this article to introduce my interest and hobby. Playing pool, more specifically, eight ball, is one of my hobbies. I would like to share here the rules of playing eight ball and how to enjoy playing the ga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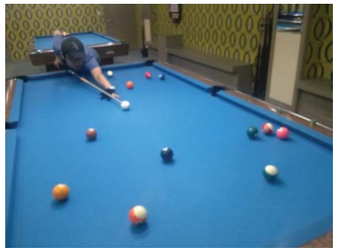
핸디의 개념

포켓볼은 핸디라는게 있습니다. 핸디란 사구나 삼구칠 때 80, 120, 200, 500 하는 것 처럼 점수가 있는 데요, 핸디의 개념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신은 몇점이지 체크해 보세요~

1점: 큐걸이 잘 안되는 수준에서 여러 번 쳐 봤지만 공에 대한 훈련이 필요한 단계
2점: 프리볼 좀 치고 스트록(일명 큐질) 좀 되는 단계
3점: 포켓을 잘 시킨다는 소리를 들음
4점: 좋은 공은 다 치고 다음공을 보는 포지션플레이 개념이 있음 멀리있는 공은 부정확한 경우
5점: 어려운 공도 참 잘넣을수 있는 수준 5분정도에 한게임 정도 치는 수준
6점: 잘 맞으면 2큐에 싹쓸이 가능 동네에선 거의 지지 않음
7점: 한큐에 싹쓸이 가능 ,게임 운영을 잘함.
8점: 공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정말 잘치는 수준 아마추어 선수 수준
9점: 아마추어 최상위 수준 (이분들의 명단은 국가에서도 관리함)

참고로 전 핸디 5~6점 이랍니다. 가온식구들은 포켓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지는 모르지만 도전 하시면 상대해 드리겠습니다.

포켓볼을 재미있게 치는 방법은 역시 내기겠죠~ 커플끼리는 닭살스러운 내기를 하면 재미있고 친구들이나 지인분들은 역시 술값이나 겜비! 내기를 하면 승부욕이 생기죠~ 저는 주말만 되면 포켓볼을 치러 항상 다닙니다. 저의 상대는 여자친구! 핸디가 5점이랍니다. 3년을 가르친 보람이 있습니다. 한시간에 평균 10~ 12 게임정도 칩니다. 저희는 닭살스러운 내기 같은 건 없습니다. 오로지 승부입니다. 다들 다른 취미,관심사가 있으시겠지만 포켓볼도 상당히 집중력을 필요로 하며 운동 겸 취미로도 좋은 스포츠인거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데이트 코스 중에 한 곳이 되는거죠~



제가 자주 가는 포켓볼 전용 당구장입니다. 서울 성동구 행당동 한양대학교 앞에 있는 당구장이지요.

사장님과 사모님이 너무 친절하시고 배우고 싶으신 분은 혼자가서 알려 달라고 하면 친절하게 잘 알려 주십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포켓볼을 치려는 사람은 많이 없겠죠.

그리고 이 당구 장은 다른 당구장과 다르게 금연입니다. 담배연기가 싫어서 당구장 가기 싫어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곳은 금연이라서 임산부,어린아이들,청소년등 다양한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 오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한시간에 7천원이라서 싸고 좋습니다.

가온 가족 여러분들도 재미있고 즐거운 취미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한 술과 여행도 좋지만 저처럼 포켓볼을 치는 것도 참 재미있는 취미인거 같습니다.

우리가족의 **여름여행**

Our family's Summer Vacation

안병수 차장
David Ahn, Sales1 Team

정말로 뜨겁고 또 뜨거운 여름입니다. 지금은 여름이 가고 가을로 들어선다는 처서가 지나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을 맛 볼 수 있게 되었지만 내쉬는 숨마저 뜨거웠던 여름, 우리 집 꼬마들과 다녀오기 좋았던 여행지 두곳을 소개할까 합니다~

Its the hot and scorching summer. Nowadays, as cheseo, one of the seasonal division which indicates the end of summer and the beginning of fall, has passed and we can feel the cool breeze in the morning and evening, I would like introduce two places (Donghae and Sancheong) that was great to visit with our children during the summer which was so hot that my exhaled breath felt hot as well.

아직 어린 꼬마들과는 장거리 여행이 두렵지요. 하지만 이번 여름은 큰맘먹고 동해로 달렸습니다. 매번 다녀온 서해안의 뻘보다는 시원한 동해 바다의 파도타기가 왠지 더 간절해지는 그런 여름이었으니깐요.
서울을 빠져나가자 다행히 고속도로는 막히지 않아 신나게 달렸습니다. 아이들도 잠 한숨 자지 않고 노래도 부르고 웃기도 하고 끝말이어가기와 열고개 스무고개도 하며 잘도 따라 옵니다. 산이 더 높고 푸른 강원도에 들어서자 이정표가 나뉘어 지네요. (←미시령 옛길).... 우리는 당연하다는 듯이 아무도 들어서지 않는 '옛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올라 언덕을 넘어선 순간~ 그 장엄한 풍광을 잊을 수가 없네요.
언덕길을 우측으로 돌아서자 기다렸다는 듯이 설악산 울산바위가 우리보며 환하게 맞이했습니다. 옛길 선택을 뿌듯해하며 차에서 내려 사진도 찍고 바람도 맞고 멀리 내려다 보이는 동해바다를 보며 드디어 동해로 들어선 것을 실감했습니다. 이번 여행의 목적지는 강원도 고성의 백도해수욕장~ 미시령에서 멀지않은 곳에 있습니다. 표지판을 따라 들어서자 아담한 마을이 보입니다. 미리온 일행이 잡아놓은 민박집에 짐을 내리자마자 아이들과 바다로 향했지요. 바닷가는 아담하고 또 완만했습니다. 그야말로 꼬마아이들이 있는 집은 왕추천할만한 곳입니다. 속초나 강릉쪽 보다는 사람이 많지 않고 물이 얕은것도 추천할만한 이유입니다. 아이들은 신이나 튜브를 타고 들어가고 나도 신이나 스노클링 장비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이곳은 서해안 못지않게 조개류잡기에도 그만입니다. 바위틈틈히 각종 조개가 속속히...아이들과 잡는 재미도 쏠쏠하지요. 민박집에 잡은 조개를 들고 오니 주인 할머니께서 못하나를 넣어두면 해감에 그리좋다고 하시네요.. 참! 바닷가 자체도 완만하고 물이 맑은데다 해변이 고운데 해변 한가운데에는 어린 꼬마들을 위한 작은 수영장도 마련되어 있답니다~
늦은 오후까지 바닷가에서 놀고 민박집에서 정신없이 고기를 구워먹고 나니 벌써 어두워집니다. 작은 해변이라서 그런지 주변이 금새 깜깜해집니다. 배도 부르고 슬슬 주변 산책이나 해볼까 해서 아이들과 나섰습니다.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물고 나선 백도해수욕장의 저녁산책은 이내 여름밤 별자리 산책이 되었습니다. 보통의 해수욕장처럼 시끄럽거나 화려한 불빛이 없는 이곳의 밤하늘은 그야말로 별천지였습니다. 이제는 도시에서 아이들과 쉽게 볼수 없는 북두칠성도 반짝반짝 제빛을 발하고 카시오페아, 전갈자리도 반짝였습니다. 시원한 바람과 함께 한적한 동해에서만 받을수 있는 멋진 선물이었습니다. 한참을 바닷가 길을 따라 아야진 해변까지 걸어갔다 오니 한여름 더위는 이만 안녕~~~~
다음날은 백도해수욕장과 20분거리에 있는 도원리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복숭아 열매가 조금씩 맺혀있는 도로를 따라 들어오는 길은 입구부터 사람들이 붐비더군요. 하지만 계곡안쪽으로 들어서니 참으로 좋은 계곡하나 발견했다 싶었습니다. 넓지도 좁지도, 깊지도 얕지도 않은 계곡의 물은 아이들도 어른들도 놀이 딱 좋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계곡으로 내려가 바위와 바위틈사이 물길로 튜브를 타고 내려오며 자연 워터슬라이딩을 즐겼습니다. 어른들은 자리를 잡고 김치부침개며 닭볶음이며를 만들어 막걸리 한잔을 시원하게 나누었지요. 넓적한 바위위에 누워 계곡바람을 솔솔맞으니 잠도 그리 잘오고 신선이 따로 없었습니다. 여기서 밤이 되도록 놀다 돌아가자에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을만큼 시원한 도원리 계곡 역시 다녀옴직한 곳이 되겠습니다.